

한국어 학습자의 외래어 발음 양상 연구

-중국인 학습자의 자연 발화를 대상으로

하신영* | 인천대

< 목 차 >

1. 서론
2. 자료의 구성
3. 학습자의 외래어 발음 분석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어권 고급학습자의 자연발화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외래어 단어의 발음 양상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어권 고급학습자의 일상 대화를 녹음, 전사하여 발음 양상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음운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영어에서 들여온 한국어의 외래어를 발음하는 데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영어의 's'에 해당하는 발음이 포함된 외래어를 발음할 때 표기법상으로는 'ㅅ'으로 일관되게 표기되나 어두 자음일 때와 어말 자음일 때 발음이 달라지는데 학습자들은 이 발음에 혼동을 보인다. 또한 한국어의 음운 구조상 's'가 '스'로 표기되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객원교수

는 경우, 즉 모음이 첨가되어 음절이 하나 늘어나는 경우에 더 많은 오류를 보인다. 둘째, 한국어 음운에 존재하지 않는 하향 이중모음은 표기법상 두 음절, 혹은 한 음절로 표기되는데, 표기와 관계없이 원어의 발음과 유사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다. 외래어의 발음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을 통해 한국어의 음절구조를 가르치는 것이 한국어 발음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주제어: 외래어, 영어 외래어의 발음, 고급 학습자, 자연발화 자료, 음절구조제약, 이중모음

1. 서론

본 연구는 중국어권 고급학습자의 자연발화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외래어 단어의 발음 양상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어권 고급학습자의 일상 대화를 녹음, 전사하여 발음 양상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음운론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분석 결과를 통해 중국어권 학생들의 발음의 실재를 파악할 수 있고 실제 한국어 발음 교육 현장에서 교육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는 발음에 대한 연구보다 문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 문법으로 짜여진 국어 교육적 접근과 달리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문법은 그 접근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이 연구하여 문법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에서 우선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에 반해 한국어 교육에서 발음에 대한 연구는 문법 교육에 밀려 부차적인 부분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발음 교육은 외국어 교육에서 부차적인 교육이 될 수 없다. 외국어 학습자가 기본적인 단어와 문장 구조를 익히게 되어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면 어휘 구사

나 문장 구성에서의 오류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발음상의 오류는 쉽게 포착되기 때문에 발음 능력은 학습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성우(2008)에서 밝히듯이 이렇게 드러나기 쉬운 부분이지만 발음 교육에서는 ‘완결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끝이 보이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¹⁾

다행히 현재 한국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중에서 중국어권에서 온 학생들의 수효가 다른 언어권에서 온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중국어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음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다양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발음 연구의 초기에는 언어권별로 특수하게 나타나는 발음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장향실(2002)에서는 중국어권 학생들이 ‘그런데’를 ‘글런데’로 발음하는 이유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ㄹ’의 특성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²⁾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은 각 언어권별로 집중적으로 교정해 주어야 할 개별 발음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로 이루어졌으나 경험적인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개별 발음의 관찰에서 벗어나 음운규칙의 교육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윤정기(2012)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의 음운규칙 적용에 따른 중간언어의 양상을 살피고 유형화하여 음운규칙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논의 외에도 많은 논의들에서 음운규칙의 적용시 나타나는

1) 한성우(2008:4-5)에서 정리한 발음 교육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발음의 오류는 반복적이기는 하나 학습해야 할 수가 유한하고 연습을 통해 완벽하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보다도 학습의 결과가 ‘완성’적일 수 있고 따라서 희망적인 학습 분야라는 점에서 발음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a) 반복성: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음운이 있으면 이 음운이 포함된 모든 단어에서 반복적으로 오류가 나타난다.
 b) 유한성: 음운과 음운규칙은 수가 정해져 있어 교육 내용과 범위가 유한하다.
 c) 완결성: 발음 교육은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완성’을 추구할 수 있는 요소이다.

2) 중국어의 유음/ㄹ은 설첨음으로 항상 음절초에만 오므로 한국어의 어중에 오는 ‘ㄹ’을 탄설음으로 발음하더라도 중국어의 /ㄹ/로 발음하게 된다. 장향실(2002:7-8)

오류와 적용 양상들을 논의한 논문들이 있으나 대부분 초,중급 학습자들의 중간언어에 관심을 두고 오류 분석을 진행한 내용이 많다.³⁾

중국어권 화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음성학적인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오재혁(2013)은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폐쇄음의 발성 유형에 따른 변별적 지각 양상을 실험을 통하여 살폈다. 그 분석 결과를 통해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음운론적 정보뿐만 아니라 음향 음성학적 정보를 이용하여 발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⁴⁾ 김지형(2012)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학습의 발달 단계를 실험음성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10명의 학생들이 초급 단계에서 고급단계에 이르기까지 1년간의 발음 변화를 음성학적으로 관찰하여 중간언어의 변화를 보여준 연구로서 동일한 학습자의 발음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보여준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개별 모음의 발음을 실험실 환경에서 관찰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에서의 발음을 관찰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음운론적 연구를 진행한 경우에는 대부분 초급과 중급 단계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고 실험음성학적 연구를 한 경우에는 통제된 실험실에서 발화한 발음들, 특히 개별 음소의 발

3) 백소영(2010)에서는 여러 한국어 교재의 발음 교육 내용을 비교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교육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실을 일반적인 음운규칙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권 화자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는다.

연음 → ‘ㅎ’탈락 → 경음화 → 비음화 → 유기음화 → 구개음화 → 유음화

하신영(2016)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발음규칙 교육 내용에 방언의 발음 교육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인데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반 발음교육 교재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오재혁(2013)은 어두 초성 환경에서는 평음과 격음을 구별하지 못하며, 어중 초성에서는 평음과 경음을 변별하지 못한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어두 초성에서 평음과 격음의 차이는 후행 모음의 음높이 차이에 의해 변별되며, 어두 초성에서 평음과 경음은 폐쇄 기간이나 선행 모음의 길이 차이에서 변별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식성]과 [긴장성]만으로 음소를 구별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음에 집중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⁵⁾

본 연구에서는 교수의 측면보다는 학습자가 생성한 언어 자료에 중점을 두어, 충분히 한국어의 발음을 습득한 후에 학습자가 이를 사용하는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어의 발음을 습득하여 능숙하게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급 학습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발음을 하고 있는지 일상대화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고급 학습자뿐만 아니라 초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발음을 교육할 때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자료의 구성

본 연구에서 구축하여 분석한 자료는 중국어권 고급 학습자의 일상대화 자료이다.⁶⁾ 이 자료를 통해 우리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발음하기 힘들어하는 발음을 관찰할 수 있고, 한국어의 음운 규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적용하여 생성해 내는 발음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발음 현상들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된 내용과 일치되는 자료도 관찰된다. 음운론적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은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외래어에 한정하여 그 발음을 관찰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자들의 외래어 발음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덕분에 중어권 학습자들의 자연스러운 발음 오류 현상을 관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 5) 음운론적인 접근을 하여 연구한 경우에는 초급 단계의 학습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성우(2008)에서 밝힌 것처럼 ‘초급단계에서 평음과 경음의 대립을 구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음운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평음 발음에 경음성이 가미되는 것이나 유기음을 발음할 때 유기성이 약한 문제는 음성적인 문제이므로 고급 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보고 논의에서 제외’하고 있다.
- 6) 학습 상황이나 실험 상황이 아니라 구어성이 가장 높은 일상대화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발음을 관찰함으로써 실제 학습자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강범모 외(1998)과 구현정 외(2002)에서는 구어 자료 중 가장 구어성이 강한 것으로 일상대화 자료와 전화대화 자료를 든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외래어란 사전에 외래어로 등재된 단어 외에도 우리가 흔히 쓰고 있으나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어 표현이나 외국어로 표기된 상품명이나 인명도 포함한다. 편의상 본고에서는 이를 모두 포함하여 ‘외래어’로 칭하기로 한다. 교육 기관에서 소위 ‘표준’ 발음이라고 배운 발음이 아니라 실제로는 발음의 규칙을 배운 적이 없는 외래어도 한국어 학습자들이 발음해야 할 한국어 발음 교육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외래어의 발음을 관찰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발음을 관찰할 수도 있고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외국어의 외국어’의 발음을 어떻게 발음해내는가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외래어 연구는 대부분 국어 교육과 국어 정책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한국어 교육에서 외래어란 어휘 교육의 한 가지 대상으로만 여겨졌다.⁷⁾ 최근에는 한국어 교육에서도 외래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그 중에서 외래어의 발음에 대한 부분은 현실 발음과 교재에 제시되는 발음 사이의 괴리를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⁸⁾ 또한 그러한 연구들에서 교육용으로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외래어 목록은 이미 교재에 들어가 있는 외래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실제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떻게 발음을 하고 있는가와는 거리가 있다. 본고는 외래어 발음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7) 구분관 외(2011)의 외래어 표기 규범 영향 평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의 외래어 사용과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인식 실태를 연구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모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그 내용은 표기 방식에 국한되어 있다.

8) 박종후 외(2012)에서는 현행 어문 규정에 외래어에 대한 발음 규정이 없으므로 한국인 화자들의 외래어 발음이 표기나 일반적인 표준발음 규정과도 일치하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 외국인 학습자들이 외래어를 발음하는 데에도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한국인의 발음 혼란과 별개로 외국인 학습자가 어떻게 발음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조형일(2013)은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외국어 표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상용되는 표현을 제시해야하며, 표기와 현실 발음이 상이한 경우에는 현실발음도 ‘[]’안에 제시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모든 제안을 한국어 사전에 실현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한국어 학습을 위한 사전에는 외래어 혹은 외국어 어휘에 대한 실제 통용 발음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지, 어디까지를 교육용 외래어로 선정할 것인지와 같은 교육적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습자들이 발화하고 있는 외래어 발음의 모습을 관찰하고자 한다. 발음과 어휘를 배우면서 교정해 하고 있는 단계의 초,중급 학습자가 아니라 일정 수준에 오른 고급 학습자들의 발화자료를 대상으로 관찰한다. 따라서 관찰 결과는 ‘외래어’라는 어휘 부류의 발음 특징을 드러낸다고보다는 외래어를 통해 자연스러운 ‘발음’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⁹⁾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현재 한국의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중국인 대학원생 11명의 대화를 녹음하여 전사한 것이다. 전체 발화는 한글 표기로 전사되었고 본고에서 관찰하는 외래어 발화 부분은 필요에 따라 정밀전사하여 관찰하였다. 2명에서 4명의 대상자가 5-10분간 자유롭게 대화하였고 총 714분 분량의 녹음자료를 얻었다.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제를 제시하여 주었으나 주제와 상관없는 대화가 이루어져도 문제 삼지 않았다.¹⁰⁾ 녹음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 9) 사실 본고의 관심사는 외국인 학습자의 ‘발음’을 하나의 한국어 ‘방언’자료로서 혹은 사회언어학적 ‘변종’으로 보고자 하는 입장으로 연결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이란 “독립된 언어체계를 가지는 한국어의 변종”(최명옥, 2015:58)이며 ‘변종’이란 “(지리적, 사회적, 민족적, 문맥적, 성별 등에 관련하여)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언어요소나 유형의 집합”(데이비드 싱글턴, 2008:143)이다. 외국인 학습자의 발화자료는, 적어도 고급 단계에 이른 학습자의 경우에는 사회학적으로든 방언학적으로든 사회방언학적으로든 관찰과 연구의 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0) 제시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아래는 21세기 세종계획 현대구어말뭉치의 ‘일상대화’ 자료의 주제를 참고하여 설정한 것이다.

가족, 감기, 강의, 게임, 결혼, 계획, 공연, 관광명소, 광고, 교육, 교통, 군대, 날씨, 논문, 놀이문화, 대중가요, 도서관, 동아리, 라디오, 머리모양, 물건구입, 미신, 미용실, 미팅, 방학, 배우, 병원, 봄, 사랑, 사진, 생일, 선거, 성격, 성형, 수강과목, 수강신청, 수업발표, 시위시행, 식당, 식사, 연애, 식생활, 식이요법, 여가, 여행, 연극, 연애, 영화, 외국어시험, 외모, 운전, 유행, 음악, 음주문화, 이십대, 인터넷, 전쟁, 정치와 경제, 종교, 직업, 진로, 진학, 진학, 질병과 건강, 책, 취미, 취업, 친구, 하루 일과, 학교생활, 학비, 학원, 화장품, 회사생활, 휴식

<표1> 녹음 대상자 정보

| 학습자 | 성별 | 연령대 | 한국어 학습 기간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등급 |
|-----|----|--------|--------------|-----------------------|
| A | 여 | 20대 중반 | 12년 | 6급 |
| B | 여 | 20대 후반 | 9년 | 6급 |
| C | 여 | 20대 후반 | 7년 6개월 | 5급 |
| D | 여 | 20대 중반 | 5년 | 6급 |
| E | 여 | 20대 후반 | 5년 6개월 | 6급 |
| F | 여 | 20대 중반 | 5년 | 5급 |
| G | 여 | 20대 중반 | 6년 | 6급 |
| H | 여 | 20대 중반 | 5년 | 5급 |
| I | 여 | 20대 중반 | 5년 | 4급 |
| J | 여 | 20대 중반 | 5년 | 4급 |
| K | 여 | 20대 중반 | 1년 6개월 | 4급 |

3. 학습자의 외래어 발음 분석

일차적으로 전사된 자료에서 관찰하려고 하는 외래어 단어가 포함된 어절을 모아 하나의 표제어 아래 묶어 정리하였다. 어절로 나눈 까닭은 명사형인 외래어가 뒤따르는 어미형과 연결되어 발음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핸드폰’의 경우 조사된 자료는 아래와 같이 정리되었다.

<표2> ‘핸드폰’의 조사 자료표

| 사전형 | 포함 어절 | 실제발음 | 횟수 |
|-----|--------|--------|----|
| 핸드폰 | 핸드폰으로도 | 핸드포느로도 | 1 |
| | 핸드폰으로 | 한드포느로 | 2 |
| | 핸드폰에서 | 핸드폰.네서 | 1 |
| | 핸드폰 | 한드포 | 1 |
| | | 핸드폰 | 1 |
| | | 한드폰 | 1 |

3.1. 외래어의 목록과 종류

발음의 특징을 살피기 전에 대화 자료에 쓰인 외래어의 목록을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종류별로 살펴보자. 관찰된 외래어의 목록은 총 178종이다. 그 목록을 한글 자모순으로 정리하고 2016년 현재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올라있는지 여부와 한국어 기초어휘집(배주채, 2010)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였다.¹¹⁾

<표3> 외래어 목록 1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여부)

| | 목록 | 비율 |
|--------------------|---|---------------|
| 표준국어 대사전 등재어 | 가이드, 간디, 홈페이지, 휴대폰 등 | 141종 (79%) |
| 그 외 | 2PM, 3D, ebs, kbs, k-pop, ost, ppt, VIPS, 게스트 하우스, 네이버, 네이티브, 닥터, 로맨틱, 롯데월드, 룸, 리무버, 매트, 멘트, 미스터피자, 빅뱅, 소셜 커머스, 스시, 스킨, 아메리카노, 아이폰, 아프칸, 에뛰드, 에버랜드, 오바마, 위메프, 이마트, 이북, 쿠팡, 텍스 프리, 토픽, 패밀리, 페이스북 | 37종 (21%) |

사전에 외래어로 올라 있지 않은 단어는 21%인데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VIPS’, ‘페이스북’, ‘롯데월드’ 등 상품명이나 회사명이며 ‘오바마’, ‘빅뱅’과 같은 인명이다. 최근에 생긴 개념인 ‘소셜 커머스, 이북’, 줄임말로 만들어진 ‘ost, 아프칸’ 등도 여기에 포함되며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나 원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네이티브, 로맨틱, 룸, 멘트, 텍스 프리’

11) 사전에서 순화의 대상으로 표시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않고 포함하였다. 총 목록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기초어휘집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초중급 어휘들을 모아 여러 기준으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학습자용 기초 외래어를 연구하기에 도움이 된다. 물론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 관찰하기에도 편리하다.

등도 관찰되었다. 특히 이런 단어들은 교육기관이나 교재에서 학습했다기 보다는 실생활에서 배운 단어들이라 그 발음의 특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출현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발음한 것인지 한국어의 외래어로 인식하여 발음하였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표4> 외래어 목록 2 (한국어 기초 어휘집 수록 여부)

| | 목록 | 비율 |
|------------|---|---------------|
| 기초 어휘집 수록어 | 게임, 노트, 뉴스, 다이어트, 드라마, 디자인, 라디오, 러시아, 메뉴, 메시지, 버스, 쇼, 쇼핑, 스타, 스트레스, 스포츠, 아나운서, 아시아, 아프리카, 에어컨, 이메일, 이미지, 인터넷, 인터뷰, 카메라, 캠퍼스, 컴퓨터, 크리스마스, 터널, 터미널, 티브이, 팀, 파티, 프랑스, 프로그램, 피아노, 피자, 핸드폰, 호텔, 홈페이지 | 39종 (22%) |
| 그 외 | 그룹, 기모노, 핑크, 하이힐 등 | 139종 (78%) |

한국어 기초 어휘집에는 초, 중급 학습자를 위한 어휘를 선별하여 놓았는데 그 중에서 외래어 부분을 따로 모아 두었다. 기초 어휘집에는 사전 등재어만을 대상으로 분류를 하였기 때문에 <표4>에 있는 39종은 모두 사전에 들어 있는 단어들이다. <표3>에서 분류한 비등재어 37종을 제외하면 사전 등재어 141종 중 약 28%만이 기초 어휘집에 수록된 셈이다. 실제로 고급 학습자들은 훨씬 더 다양한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초 어휘집에 수록된 단어는 이후 논의에서 관찰되는 외래어가 초중급 단어임을 보여주는 기준으로 삼는다.

3.2. 사용 빈도에 따른 분석

관찰된 외래어 중에서 6번 이상 출현한 단어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5> 자주 사용된 외래어 목록

| 단어 | 횟수 |
|------------------------------|----|
| 인터넷 | 35 |
| 드라마 | 31 |
| 게임 | 30 |
| 프로그램 | 24 |
| 스트레스, 버스 | 22 |
| 쇼핑 | 20 |
| 콘서트 | 18 |
| 뉴스, 라디오, 스타일 | 13 |
| 파마 | 12 |
| 피시방 | 11 |
| 룸메이트, 컴퓨터 | 10 |
| 토익, 캠퍼스, 사이트 | 9 |
| 스타, 케이크 | 8 |
| 핸드폰 | 7 |
| 마스카라, 세트, 셔틀 버스, 토픽, 스테이크 | 6 |

스무 번 이상씩 사용된 단어들 ‘인터넷, 드라마, 게임, 프로그램’ 등을 보면 20대의 여성 중국인 학습자들이 주로 어떤 주제 혹은 화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스무번 이상 사용된 단어는 모두 <표4>의 기초어휘집에 실린 기본 단어들이다.¹²⁾ 물론 본고의 논의는 어휘의 의미나 학습용 교재에 대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표5>에서 보이는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발음에 특히 주목하여 관찰해 볼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3.3. 발음 특성에 따른 분석

12) ‘콘서트, 파마, 피시방, 룸메이트’ 등의 단어는 자주 쓰이고 있으나 기초어휘집에서는 제외된 단어들로 중급 이상의 학습자의 어휘 교육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발음과 달리 중국어권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발음상의 특성을 살펴 보면 어떤 음소에서 발음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소 차이 때문에 학습자들이 배우기 어려워하는 발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외래어의 발음에서도 일반적인 중국어권 화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발음의 오류가 관찰된다.¹³⁾ 그러나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부분은 목표어인 한국어와 모어인 중국어 사이에 다른 외국어-여기서는 대부분 영어-가 개입되어 있는 외래어를 발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영어의 ‘s’ 발음과 이중모음 발음이 포함된 외래어에 집중하여 관찰하도록 한다.

1) 영어 ‘s’ 의 발음

- (1) ‘스트레스’ [스트레스/스트레쓰/스트레ś]
‘스타일’ [스타일]
‘스타’ [스타/s타]
‘스페인’ [스페인], 스타킹 [스타킹]
‘스테이크’ [스테이크/s떼이크/s테^h이크]

(1)에 제시된 예는 어두 자음군 ‘sp, st’로 시작되는 단어인데 원어에서는 자음군 한 음절로 발음되나 한국어에서는 음절구조 상 두 음절로 발음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이런 단어들의 경우 빈도수에 따라 특징이 관찰되는데 낮은 빈도수의 단어일 경우 원어와 같이 ‘s’를 발음하나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두 음절로 발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번 관찰되어 빈도수가 높

13) 일반적인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은 외래어의 발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된다.

- ‘ㄱ’과 ‘ㄱㄱ’의 혼란: ‘브랜드’ [브랜드/블랜드]
- 받침 ‘ㄴ’과 ‘ㅇ’의 혼란: ‘스킨’ [스킨/스킹], ‘빅뱅’ [빅뱅/빽빽]
- 자음 ‘ㅈ, ㅉ, ㅊ, ㅅ’의 혼란: ‘비자’ [비자/피차/미짜/미자]

은 편에 속하는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스트레s/스트레쓰]로 발음되어 어두의 '스'를 [s]로 발음되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았다. 18번 관찰되는 '스타일'의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스타일]로 발음되었다. 그러나 '스테이크'의 경우에는 6번 모두 [스테이크/s페이크]로 관찰되었다. 출현 빈도가 낮은 '스타킹', '스타', '스페인'의 경우에도 첫음절의 '스'를 제대로 발음하지 않고 영어식으로 's'만 발음하는 경우가 관찰된다. 빈도수에 따라 발음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처음 어떤 새로운 단어를 인식했을 때에 그 단어의 원어를 알고 있는 경우 원어와 비슷한 방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나 자주 사용하고 듣게 되는 단어의 경우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발음을 바꾸어 발음하게 되는 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 (2) '사이트' [싸이트/사이트]
- '세트' [췌트/췌]
- '세일' [췌일]
- '시스템' [씨스템/시스템]
- '사스' [싸쓰/싸s]

(2)에 제시된 단어들은 자음군이 아닌 어두의 '스'를 가진 외래어들이다. 한국인의 경우 표기된 형식대로 발음하기보다 어두의 '스'를 경음화하여 '쓰'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놀랍게도 자료에서 관찰된 결과도 동일하다. '사이트'는 9번 관찰되는데 그중 한 번만 [사이트]로 발음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싸이트]로 발음되었다. '세트'도 6번 모두 [췌트/췌]로 발음되었다. '세일', '센스' 등은 모두 어두 자음을 '쓰'로 발음하고 있다. 학교나 교재에서 배운 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병명 '사스'(SARS)도 [싸쓰]로 발음하고 있다.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두 번 발견되나 이는 전체적인 경향으로 보면 아주 드물게 관찰되는 것이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어두의 '스'를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쓰'로 발음하고 있는데, 표기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발음이 일관되게 그렇게 들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원어의 발음이 그와 가깝기 때문에 아예 영어 발음에 가깝게 발음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외래어의 경우 어두 '스'을 '쓰'으로 발음한다는 규칙성을 중간 언어로서 만들어내었

을 가능성도 있다. '슬리퍼'의 경우 학습자의 발음에서 [썸리퍼]가 관찰되는데, 이는 '스'을 '쓰'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규칙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3) '뉴스' [뉴우쓰/뉴쓰/뉴스/누스]
'스트레스' [스트레스/스트레쓰/스트레스]
'버스' [뻐쓰/뻐스/버스]
'택스프리' [택스프리], 포스터 [포스터]
'사스' [싸쓰/싸스]

(3)에 제시된 단어들은 어말의 '스'를 가진 외래어들이다. 한국인의 경우 모두 [쓰]로 발음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두 경우와 달리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발음에서도 다양한 경우가 관찰된다. 13번 관찰되는 '뉴스'의 경우 끝음절의 모음을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4번이며, '스트레스'의 경우 22번 중 마지막 음절을 [s]로 발음하는 것 3번, [쓰]로 발음하는 것이 3번이고 나머지 12번은 [스트레쓰]로 발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버스'의 경우에는 총 30번 중 [쓰]가 16번, [스]가 5번, [s]가 9번 관찰된다. 특히 '택스프리', '포스터'와 같이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의 경우 어김없이 [s]로 발음하고 있다. '버스'와 같이 초급 단어이면서 자주 쓰이는 단어에서조차 일관된 발음이 관찰되지 않는 것은 어말의 '스'가 [쓰]로 발음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아주 어색하게 여겨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위의 관찰을 통해 영어의 '스'에 해당하는 소리를 한국어의 외래어로서 발음해야 할 때 학습자들은 어느 정도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이 아닌 고급 단계의 학습자들임에도 여러 발음이 관찰되는데, 첫음절의 '스'을 경음화하여 '쓰'로 발음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규칙성을 느끼고 거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으나 원어에는 없는 모음을 추가하여 음절을 하나 더 만들어 발음해야 하는 것에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두에 모음을 첨가하여 '스'를 발음하는 경우보다 어말에 모음을 첨가하여 '쓰'를 발음하는 것에 더욱 익숙해지기 힘들어 한다고 볼 수 있다.

2) 영어 이중모음 ‘에이, 아이, 오우’ 의 발음

- (4) ‘게임’ [께^임/깁:/께임/게^임]
 ‘룸메이트’ [룸메^이트/룸메이트/룸메니트]
 ‘케이크’ [케^익/케^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스떼^이크/스테^이크]
 ‘홈페이지’ [홈페^이지/홈페:지]

영어에서 온 외래어에는 원어에 하향이중모음이 포함된 단어들이다. 한국어에는 이런 이중모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두 음절로 발음하고 표기할 때에도 두 음절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중국어 화자들의 발음에서는 우리말에서는 어색한 하향이중모음의 발음이 자주 관찰된다. 위의 예 (4)에서 ‘^’ 표시로 연결된 모음은 한 음절로 발음된 이중 모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매우 자주 사용되는 ‘게임’이라는 단어는 총 30번 중 15번의 경우에 이중모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총 10번 관찰되는 ‘룸메이트’는 그 중 4번이 이중 모음으로 발음된다. ‘케이크’의 경우 8번 중 8번 모두 ‘에이’가 이중모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스테이크’ 또한 6번 모두 이중모음으로 발음된다. ‘게임’과 ‘룸메이트’는 그나마 그 중 자주 쓰이는 단어이므로 두 음절로 발음하는 것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나 그 외의 단어들은 어김없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출현빈도가 낮은 ‘홈페이지, 데이트, 페이지’ 등도 그렇게 발음됨은 물론이다.

- (5) 사이트 [싸^이트/사^이트/싸이트]
 아이쇼핑 [아^이 쇼핑]
 아이폰 [아^이폰]

(5)에 제시된 단어에 원어에 하향이중모음 [aɪ]가 포함된 예들이다. 이들에서도 ‘에이’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 9번 관찰된 ‘사이트’의 경우 6번의 발음에서 이중모음이 확인된다. 출현 빈도가 낮은 ‘아이쇼핑, 아이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 음절에서 들려야 할 ‘이’ 발음이 아주 약하게 빨리 지나가는 발음, 말 그대로 활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하향이중

모음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 화자들은 ‘사이트’를 ‘사:트’로, ‘아이폰’을 ‘아:폰’으로 듣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스테이크’는 사실 영어로 보면 한 음절인데 한국어의 음절 구조 상 네 음절이 된 경우이다. 어두의 ‘s’는 ‘스’로 바뀌게 되고 어말의 ‘k’에도 모음을 첨가하여 ‘크’로 발음이 된다. 학습자들이 외래어를 발음할 때 어두와 어말의 음절이 늘어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거나 그 규칙을 인지하고 있으나 어중의 이중 모음에 대해서는 음절을 늘여서 발음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급 학습자들임에도 이런 일관된 오류가 보이는 것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발음 오류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어에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하향이중모음의 발음이 있으므로 두 모음이 연결되어 발음될 때 자연스럽게 한 음절로 줄여 발음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어로 발음을 하게 되면 두 음절로 나누어 발음해야 함을 인식시키고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 (6) 쇼핑 [쇼[˘]우핑/쇼핑/췌핑/슈핑]
 쇼 [쇼[˘]우]
 노트 [노[˘]우트]

(5)에 제시된 예들은 한글 표기 상 ‘요’ 혹은 ‘오’로 표기되나 실제 원어 발음은 하향이중모음 [ov]인 경우이다.¹⁴⁾ 위의 (4)에서 본 ‘에이’의 경우와는 반대의 상황이다. ‘에이’는 표기상 두 음절이나 학습자들이 한 음절로 발음하고 있었고, ‘오’는 표기상 단모음인데 학습자들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위 단어들은 모두 한국어 기초어휘집에 실려 있는 초급 단어들이므로 학습자들은 분명 교재에서든 학습 기관에서든 이들 단어를 배우면서 한글 표기에도 익숙해졌을 것이다. 또한 실제 한국인들과의 대화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이다. 그럼에도 이들 단어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에이’의 경우에서 살핀 것과 같이 학습자들이 한국인 화자와 자신의 발음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14) ‘쇼핑’의 영어 발음은 [ʃɒpɪŋ]인데 한글 표기상 ‘요’로 표기되었지만 선행하는 ‘s’의 실제 발음이 [ʃ]인 것에 따라 외래어 표기법상 ‘요’로 표기된 것이 지 모음의 실제 발음은 ‘노트’의 ‘오’와 동일하다.

이중모음 ‘에이’와 ‘아이’, ‘오우’의 경우를 보면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외래어를 발음할 때 그 발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일반적인 단어의 발음을 받아들이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쌍이다’라는 단어를 듣고 읽고 배우게 되었을 때 그 단어의 발음은 [싸이다]로 인식된다. 본인의 모국어에 [au]라는 하향이중모음이 있다는 것은 한국어의 발음 [아이]를 학습하는 데에 간섭하거나 방해할 주지 않는다. 그러나 외래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이트’의 경우 그 원 발음이 [saɪt]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어의 외래어 ‘사이트’를 접하게 되면 표기대로 [사이트] 혹은 [싸이트]로 발음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글 표기에 이끌려 발음을 하기에 앞서 이미 영어 단어로 가지고 있는 ‘site’의 발음이 학습자들의 어휘부 발음 정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외국어를 학습할 때 확장되게 되는 어휘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3) 표기에 이끌린 발음 오류

- (7) ‘인터넷’ 인터넷 [인터네스/인터네/인터넌]
 인터넷을 [인터네슬/인터네스]
 인터넷에 [인터네테/인터네s에]
 인터넷하는 [인터네타는]
 ‘메시지’ [메췌지/메시지]
 ‘비즈니스’ [비즈니쓰/비즈니스]

학습자들의 발음에는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원어의 발음에 영향을 받아 표기와 다르게 발음하는 것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표기의 영향을 받아서 오류를 보이거나 실제 한국인의 발음과 달리 발음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관찰된 외래어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인터넷’의 경우 흥미로운 부분이 관찰되는데 자료(7)에서 보듯이 ‘넷’의 받침이 ‘ㅅ’을 [s]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외래어임에도 익숙하게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인터넷하는[인터네타는]’의 경우와 같이 음운 규칙을 적용하여 발음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으나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인터네스]’와 같은

발음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한국어의 표기에 이끌리어 원어의 마지막 소리가 ‘s’, 즉 ‘s’일 것이라 추측하여 발음한 것으로 보인다.

‘메시지’의 경우에는 [메세지]라는 발음과 [메시지]라는 발음이 모두 관찰되는데 일반적인 한국인의 발음은 [메세지]에 가깝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글 표기를 따라 발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즈니스’의 경우 [비지니스/비지니쓰]라는 발음은 관찰되지 않고 [비즈니스/비지니쓰]만 관찰되는 것도 표기에 이끌린 발음으로 생각된다. 이중모음과는 달리 단모음의 경우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외국어의 원 발음이 있다 하더라도 한글로 표기된 한국어식 발음을 그대로 발음해 내는 데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표기된 대로 읽어 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찰된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내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중국어권 고급학습자의 자연발화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외래어 단어의 발음 양상을 살펴 보았다. 목표어인 한국어와 모어인 중국어 사이에 다른 외국어-여기서는 대부분 영어-가 개입되어 있는 외래어를 발음할 때 몇 가지 특징이 관찰된다.

영어의 ‘s’가 포함된 외래어는 한국어에 들어 올 때 한국어의 음절구조제약에 맞추어 발음이 변형된다. 어두의 자음군에 속하는 ‘s’는 한국어에 들어 오면 모음을 첨가하여 ‘스’로 발음되게 된다. 어두 단자음 ‘s’는 ‘s’으로 표기되나 일반적으로 ‘쓰’으로 발음된다. 어말의 ‘s’는 모음이 첨가되어 ‘스’로 표기되고 ‘쓰’로 발음된다. 이런 규칙은 명시적으로 학습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나름대로 규칙을 적용시켜서 발음하고 있는 것을 관찰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음소를 변형하여 발음하는 것보다 모음을 첨가하여 음절이 늘어나는 경우 발음에 더 많은 혼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의 이중모음이 한국어의 외래어로 들어올 때에도 발음이 변형된다. ‘에이’, ‘아이’와 같은 이중모음은 한국어에서 두 음절로 표기되고 ‘오우’, ‘아

우'와 같은 이중모음은 단모음으로 표기된다. 표기상의 확실한 변화가 있음에도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글 표기대로 발음하지 않고 영어와 같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중국어에도 해당하는 이중모음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s'와 같은 자음의 발음이 아니라 모음, 그 중에서도 이중모음과 관련된 발음에서 오류형태가 많이 관찰되는 것은 자음보다 모음의 발음 교정이 더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또한 발음 교육 과정에서 한국어에는 하향이중모음이 발음되지 않음을 분명히 가르쳐줌으로서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관찰된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발음을 교육할 때, 특히 외래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1. 외래어의 's'발음이 어말에 놓일 때 한국어의 경우 모음이 첨가되어 1음절이 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야 하며 표기와 달리 [쓰]로 발음되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
2. 외래어의 's'발음이 어두에 놓일 때는 자음군초일 경우에는 모음이 첨가되어 '스'로 발음되며, 자음군이 아닐 경우 표기와 달리 [쓰]로 발음되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
3. 하향 이중모음의 경우 중국어나 영어에서는 모음의 이동과정이 분명히 드러나며 그 모음이 한 음절을 이루는 것과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각각을 하나의 음절로 표현하여 두 개의 음절로 발음하여야 하는 것을 명확히 교육해야 한다.

일반적인 단어에 대한 중국어권 화자들의 발음 오류가 아니라 외래어 단어에 대한 발음 오류를 관찰함으로써 몇 가지 의미있는 관찰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외래어라는 단어의 부류가 자주 쓰이는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된 자료의 양이 많음에도 실제 관찰된 대상 자료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한계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계속되면 한국어 교육에서의 발음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고 외국어 습득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부록> 외래어 목록

| | 표준 국어 비등 재 | 어휘 집 수록 | 횟수 | | 표준 국어 비등 재 | 어휘 집 수록 | 횟수 | | 표준 국어 비등 재 | 어휘 집 수록 | 횟수 |
|------------|---------------------|---------------|----|-----------|---------------------|---------------|----|--------------|---------------------|---------------|----|
| 2PM | 0 | | 2 | 룸 | 0 | | 3 | 사스 (SARS) | | | 2 |
| 3D | 0 | | 3 | 룸메이트 | | | 10 | 사이다 | | | 1 |
| ebs | 0 | | 3 | 리무버 | 0 | | 1 | 사이트 | | | 9 |
| kbs | 0 | | 1 | 리스트 | | | 4 | 삼푸 | | | 1 |
| k-pop | 0 | | 1 | 리포트 | | | 3 | 서커스 | | | 1 |
| ost | 0 | | 1 | 린스 | | | 2 | 세일 | | | 2 |
| ppt | 0 | | 2 | 링거 | | | 3 | 세트 | | | 6 |
| Vips | 0 | | 2 | 마마보이 | | | 1 | 센스 | | | 1 |
| 가이드 | | | 5 | 마스카라 | | | 6 | 셔틀 버스 | | | 6 |
| 간디 | | | 2 | 마스크팩 | | | 4 | 소셜 커머스 | 0 | | 3 |
| 게스트 하우스 | 0 | | 2 | 마트 | 0 | | 1 | 쇼 | | V | 1 |
| 게임 | | V | 30 | 머리 스타일 | | | 3 | 쇼핑 | | V | 20 |
| 그룹 | | | 2 | 메뉴판 | | V | 1 | 슈퍼스타 | | | 2 |
| 기모노 | | | 2 | 메시지 | | V | 3 | 스시 | 0 | | 4 |
| 네이버 | 0 | | 2 | 메이크업 | | | 2 | 스캔들 | | | 1 |
| 네이티 브 | 0 | | 1 | 멘트 | 0 | | 1 | 스킨 | 0 | | 3 |
| 노트 | | V | 2 | 뮤지컬 | | | 1 | 스타 | | V | 8 |
| 뉴스 | | V | 13 | 미스터 피자 | 0 | | 1 | 스타일 | | | 13 |
| 다이어 트 | | V | 2 | 미팅 | | | 2 | 스타킹 | | | 1 |
| 닥터 | 0 | | 1 | 바이러스 | | | 2 | 스테이크 | | | 6 |
| 데이트 | | | 1 | 발레 | | | 2 | 스토리 | | | 5 |
| 덴마크 | | | 5 | 배드민턴 | | | 4 | 스트레스 | | V | 22 |
| 드라마 | | V | 31 | 버스 | | V | 22 | 스파게티 | | | 3 |
| 드라이 | | | 2 | 베트남 | | | 1 | 스페인 | | | 1 |
| 드레스 | | | 2 | 보일러 | | | 2 | 스포츠 머리 | | V | 1 |
| 디자인 | | V | 2 | 부츠 | | | 3 | 스피드 | | | 1 |
| 디제이 | | | 2 | 뷔페 | | | 1 | 슬리퍼 | | | 2 |
| 디지털 | | | 1 | 브랜드 | | | 8 | 시스템 | | | 3 |

| | | | | | | | | | | | |
|------|---|---|----|------|---|--|---|-------|---|---|---|
| 라디오 | | V | 13 | 블로그 | | | 1 | 아나운서 | | V | 4 |
| 러시아 | | V | 2 | 비자 | | | 3 | 아르바이트 | | | 5 |
| 로맨틱 | 0 | | 2 | 비즈니스 | | | 2 | 아메리카노 | 0 | | 1 |
| 로션 | | | 2 | 비키니 | | | 1 | 아시아 | | V | 3 |
| 롯데월드 | 0 | | 2 | 빅뱅 | 0 | | 8 | 아이라이너 | | | 1 |

| | 표준 국어 비등 재 | 어휘 집 수록 | 횟수 | | 표준 국어 비등 재 | 어휘 집 수록 | 횟수 | | 표준 국어 비등 재 | 어휘 집 수록 | 횟수 |
|-------|---------------------|---------------|----|-------|---------------------|---------------|----|----------|---------------------|---------------|----|
| 아이라인 | | | 3 | 치킨 | | | 2 | 파워 | | | 1 |
| 아이쇼핑 | | | 1 | 칠레 | | | 1 | 파티 | | V | 1 |
| 아이폰 | 0 | | 1 | 카메라 | | V | 5 | 팝콘 | | | 5 |
| 아프리카 | | V | 1 | 카페 | | | 3 | 패밀리 | 0 | | 1 |
| 아프칸 | 0 | | 1 | 캄보디아 | | | 1 | 패션 | | | 1 |
| 애니메이션 | | | 3 | 캠퍼스 | | V | 9 | 패스 | | | 1 |
| 액션 | | | 5 | 커피 | | | 14 | 패턴 | | | 1 |
| 업데이트 | | | 1 | 커피숍 | | | 1 | 팬 | | | 5 |
| 에워드 | 0 | | 6 | 컨트롤 | | | 2 | 페이스 북 | 0 | | 1 |
| 에버랜드 | 0 | | 3 | 컴퓨터 | | V | 10 | 페이지 | | | 2 |
| 에어컨 | | V | 5 | 케이크 | | | 8 | 포스터 | | | 2 |
| 오바마 | 0 | | 3 | 콘서트 | | | 18 | 프라이팬 | | | 2 |
| 오일 | | | 1 | 쿠팡 | 0 | | 2 | 프랑스 | | V | 5 |
| 오페라 | | | 1 | 쿠폰 | | | 2 | 프로(퍼센트) | | | 7 |
| 원피스 | | | 2 | 퀴즈 | | | 1 | 프로그램 | | V | 24 |
| 위메프 | 0 | | 1 | 크리스마스 | | V | 3 | 피디 | | | 2 |
| 유머 | | | 1 | 클래식 | | | 2 | 피시방(pc방) | | | 11 |
| 이라크 | | | 2 | 택스 프리 | 0 | | 1 | 피아노 | | V | 3 |
| 이마트 | 0 | | 2 | 터널 | | V | 2 | 피자 | | V | 2 |

한국어 학습자의 외래어 발음 양상 연구

| | | | | | | | | | | | |
|------------|---|---|----|---------|---|---|----|------|--|---|---|
| 이메일 | | V | 3 | 터미널 | | V | 1 | 핑크 | | | 2 |
| 이미지 | | V | 2 | 텍스트 | | | 1 | 하이힐 | | | 1 |
| 이북(e-book) | 0 | | 1 | 토익 | | | 9 | 핸드폰 | | V | 7 |
| 인터넷 | | V | 35 | 토플 | | | 1 | 호텔 | | V | 2 |
| 인터뷰 | | V | 2 | 토픽topik | 0 | | 6 | 홈페이지 | | V | 2 |
| 인턴 | | | 1 | 티브이(tv) | | V | 10 | 휴대폰 | | | 1 |
| 채팅 | | | 2 | 팀 | | V | 1 | | | | |
| 치즈 | | | 3 | 파마 | | | 12 | | | | |

참고문헌

단행본

- 데이비드 싱글턴, 배주채 옮김, 『언어의 중심, 어휘』, 삼경문화사, 2008.
 배주채, 『한국어 기초어휘집』, 한국문화사, 2010.
 최명옥, 『한국어의 방언』, 세창출판사, 2015.

논문

- 강범모 · 김흥규 · 허명희, 「통계적 방법에 의한 한국어 텍스트 유형 및 문체 분석」, 『언어학』 22호, 한국언어학회, 1998, 3-57쪽.
 구분관 · 오현아, 「외래어 표기 규범에 대한 국어교육적 고찰」, 『문법 교육』 제14집, 한국문법교육학회, 2011, 1-37쪽.
 구현정 · 전영옥, 「구어와 구어 전사 말뭉치」, 『한국어 구어 연구』 1, 한국문화사, 2002, 9-33쪽.
 김지형,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의 발달 단계 연구」, 『한국어교육』 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2, 91-115쪽.
 박종후 · 하지경, 「한국어 학습자용 외래서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사전학』 20, 한국사전학회, 2012, 164-210쪽.
 백소영, 「한국어 통합 교재를 통한 발음 교육 고찰」, 『시학과 언어학』 18, 시학과 언어학회, 2010, 119-138쪽.
 오재혁,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성 유형에 따른 한국어 폐쇄음의 변별 지각 양상」, 『한국언어문화학』 제10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3, 57-73쪽.
 유현정, 「한국어 교재의 발음교육 방안 연구」, 『한성어문학』 32,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13, 489-511쪽.
 윤정기, 「음운규칙 적용에 따른 중간언어 연구」, 『한어문교육』 제27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2, 539-561쪽.
 장향실, 「중국어 모국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시 나타나는 발음상의 오류와 그 교육 방안」, 『한국어학』 15, 한국어학회, 2002, 211-227쪽.
 조형일, 「교육용 외래어 · 외국어 표현 선정과 표기방안 연구」, 『한국언어

- 문화학』 제10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3, 183-206쪽.
- 하신영, 『결혼이민자를 위한 방언 한국어 교재의 구성에 대하여』, 『방언학』 제23호, 한국방언학회, 2016, 183-202쪽.
- 한성우,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발음 교육』, 『우리말글』 44, 우리말글학회, 2008, 165-194쪽.

Abstract

A Study on Pronunciation Patterns of Loanword in Daily Conversation Produced by Advanced Learners:

The Case of Chinese Learners of Korean

Ha, Shin-young(Incheon Univ.)

Among old stories that have a tiger character in them, this paper chose 'Brother and Sister Who Became the Sun and the Moon' and 'Patjuk Grandma and Tiger', the stories that have been dramatized in fairy tale books, picture books, an textbooks and are attracting attention and interest of readers, and examined the aspects and meanings of play shown in them.

First of all, in 'Brother and Sister Who Became the Sun and the Moon' has plays such as cheating game of mother and tiger, cheating game of tiger, brother and sister, and transformation game of brother and sister. Many of these games are mimicry, alea, and ilinx and they have the feature that two plays are sometimes combined and express hidden human desire through interesting games. The process of the play is similar to the transformation process from larva to butterfly, which depicts the constant human desire of transforming into a new existence.

Next, and 'Patjuk Grandma and Tiger' has plays such as the bet between grandma and tiger, the costume play and festival that are held by grandma and objects, and ilinx play of objects and tiger. In the three plays, the four factors of agon, mimicry, alea, and ilinx are shown in various parts. The plays shown in this story show the conflict of existence that one has to evolve from stagnation of growth to the next

stage of growth and the process of overcoming difficulty, and in that sense it represents the double-sided desire of human fear and expectation about growth.

As can be seen from above, the two storie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present the general human desire about transformation and growth in an interesting way through plays. This feature of old stories is expected to be a reference point when we adapt folktales to various contents of today. This paper, however, has the limitation that it did not analyze various old stories from a broader perspective. What was not discussed in this paper will be complemented in the following paper.

▣ Key-word: loan words, pronunciation patterns of English loanword, advanced learner, daily conversation, syllable structure, diphthong

접수일자: 2016. 11. 7 심사일자: 2016. 12. 20 게재결정: 2016. 12. 21